

#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 매개효과

## Effects of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on Adolescents' Aggressiveness: Mediation Effects of Peer Attachment

김숙향\*, 김형모\*\*

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ug-Hyang Kim(kimsughyang@naver.com)\*, Hyung-Mo Kim(hkim66@hanmail.net)\*\*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또래애착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4 7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공선성 VIF 값을 사용하여 양육태도, 공격성, 또래애착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 하였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험적 근거로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토대로 부모를 대상으로는 부모교육프로그램과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또래애착 강화 프로그램이 사회복지개입실천에서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중심어 : | 양육태도 | 공격성 | 또래애착 | 매개효과 |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effects of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on adolescents' aggressiveness and the mediation effects of peer attachment. To this end, the 7th year data (2016) (4th grade to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of Korea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s between child-rearing attitudes, aggressiveness, and peer attachment variables were confirmed. Second,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significantly affected adolescents' aggressiveness. Third, peer attachment showed some mediation effects in terms of the effects of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on adolescents' aggressiveness. For the significance verification of the mediation effects, the Sobel test was carried ou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as empirical foundation.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of education programs for parents and peer attachment consolidation programs for adolescents in relation with social welfare mediation practice.

■ keyword : | Child-rearing Attitudes | Aggressiveness | Peer Attachment | Mediation Effects |

\* 본 연구는 2017학년도 경기대학교 대학원 연구원장학생 장학금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접수일자 : 2018년 01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1월 29일

수정일자 : 2018년 01월 25일

교신저자 : 김형모, e-mail : hkim66@hanmail.net

## 1. 서론

공격성은 대상 또는 상대에 대해 파괴적인 마음을 갖는 것으로 심리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으로 파괴적인 마음인 공격성이 행위로 실현되어 욕설과 말다툼 더 나아가 때리는 행위를 나타나게 된다 [1]. 이처럼 공격성은 심리상태로 끝나고 행위로 실현시키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에는 폭력 등의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를 잘 반영하는 사건들로 특히 청소년의 폭행사건으로 볼 때 이미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사례로 미디어를 통해 밝혀진 청소년 폭행사건으로 2017년 9월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 폭행 사건이 있으며, 폭행 정도와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2016)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가 2014년도 20,001건, 2015년도 20,036건, 2016년도 20,403건[2]으로 공격성 중 때리는 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이로 나타났다. 또한 욕설은 청소년 언어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0)에 따르면 생활전반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에 73.4%가 욕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욕설을 사용하는 대화 대상이 70.3%가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3]. 또한 친구로부터 욕설은 듣고 나서 상대방을 때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0.9%로 나타났다[4].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욕설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점 척도로 5점이 '매우 자주한다.'로 초등학생은 평균이 2.5점, 중학생 3.1점, 고등학생 3.2점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5].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로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비속어 사용 횟수가 적은 반면 강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비속어 사용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

이처럼 청소년의 공격성은 타인에게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기 위한 행동들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6]. 이러한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이 심각하여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매

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책도 시급하다고 본다. 이영화와 김경연(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7]. 이러한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부모(양육자)의 양육태도로 지나친 과잉간섭, 과잉기대와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공격성은 갑자기 발현되는 것이 아니며, 학습에 의해 또는 부모의 영향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뿌리를 두고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8]. 한편 공격성을 표출하는 청소년은 또래관계에서 배척당하거나 거부를 당함으로써 학교부적응을 경험하게 되어 청소년 비행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까지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박광현과 강현옥(2016)의 연구결과 공격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은춘(2016)의 연구에서는 또래애착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0]. 이렇듯 공격성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공격성 수준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또래와의 관계 정도가 좋은 청소년은 공격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또래애착을 매개로 공격성 수준도 낮아져 결국 전반적인 생활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하게 됨을 가정할 수 있다. 청소년의 발달과업에 보호요인으로 또래애착과 공격성에 대해 검증한 김은경, 김홍숙과 김순규(2013)의 연구결과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1].

이처럼 앞서 상술했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또래애착을 매개로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또래애착은 부모의 강압적이고 지시적인 양육태도에 대해 또래와의 관계에서 신뢰하고 긴밀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또래애착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최근 들어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매체를 통해 보도됨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심각성을 재조명하는 자료로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사회복지 실천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과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애착을

매개하여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실증적 자료로 제시됨으로써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본 연구의 연구문제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연구문제1.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 매개효과를 갖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 간 관계의 질을 결정할 뿐 아니라 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녀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대상과 친밀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12][13]. 이처럼 청소년은 출생하면서부터 자신과 가장 가까운 대상인 부모와의 친밀감 형성과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Bronfenbrenner(1979)는 청소년이 상호교류하고 있는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14], 이인정과 최혜경(2006)은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청소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한다고 하였다[15]. 이처럼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영향을 미치듯이 공격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격성은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주는 자극 또는 육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1]. 이처럼 공격성은 대인과의 상호교류 과정에서 해를 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는 급격한 발달단계이며, 미래에 대한 고민과 기대 그리고 불안을 경험하는 시기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16].

이러한 시기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 경우 청소년은 높은 공격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류동훈(200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인 청소년은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7], 전주람(2008)은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공격성으로 보고하였다[18].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원길(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고 통제적일수록 유아의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9]. 조채윤과 권연희(201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0].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주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공격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공격성이 지속된다면 성인기의 공격성과도 연관성을 갖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의 공격성은 현대사회의 사회문제 중 하나임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며 수용적일수록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1]. 한동현과 김완일(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면서 통제적이며 비밀관적일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은 높은 반면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2]. 이진솔(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생활 전반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지나친 염려는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3].

앞서 상술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이며 비밀관적인 태도로 지나치게 염려하여 간섭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이 높아지는 연구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 대해 자율적이며 일관적이며 청소년 스스로 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한다면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은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을 알아보고자 함은 청소년 공격성 수준이 날로 심각해지면, 정도 또한 심각해져 사회문제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대해 실증적 자료로 제시하고자 함이다.

## 2.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또래애착 매개효과

또래관계(peer relationship)는 발달단계가 유사하며, 사회적으로 동격의 존재로서 청소년이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또래간의 지지, 친밀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24]. 또한 청소년기에는 정서사회발달 측면에서 또래와의 관계가 점차 확대되면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또래와는 자신의 비밀과 감정 또는 생각을 나누게 된다[25]. 부모의 합리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또래관계 애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지만, 부모의 비합리적이고 애정적이지 않은 양육태도는 자녀의 또래관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6]. 장인실과 장석진(2012)의 연구결과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7].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애착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간접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애착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28]. 그리고 부모의 지나친 관심은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하여 자녀의 공격성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0]. 또한 청소년기 또래관계가 성공적일 때 성인기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본다. 이를 뒷받침 하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31].

최은희와 황미영(2017)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즉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인해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30]. 오복순, 원유순과 함승례(2017)의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 두 연구결과로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또래애착이 긍정적으로 형성된 청소년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이 높아짐에 있어 또래애착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긍정적인 부모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또래애착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부정적인 부모양육 태도로 인해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보호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최진희(2010)는 청소년기에 부모의 보살핌보다는 또래와의 관계가 많아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며, 또래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시기라고 하였다[34]. 이렇듯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또래애착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가정한다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복지실천 서비스 개입이 어려울 경우 생활전반에 함께 하는 또래와의 관계 형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변화가 가능하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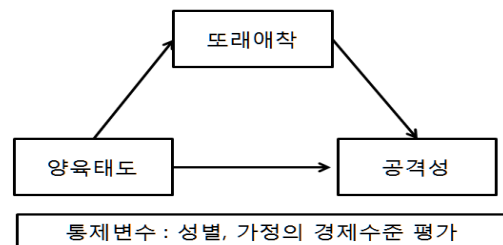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에서 다단계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조사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데이터 초4 패널 중에서 7차년도(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여[35],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또래애착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다단계층화집락표집으로 선정된 대상자 중에서 연구의 모든 변수들의 결측값, 무응답이 있는 대상은 제외한 나머지 1,918명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 3. 주요변수의 측정

### 3.1 독립변수 : 양육태도

양육태도는 부모(양육자)가 자녀에 대해 과잉간섭(Y26의 5, 6, 17번 문항), 과잉기대(Y26의 4, 7, 10, 16번 문항), 비일관적인 태도(Y26의 9, 13, 14번 문항)에 대한 질문 문항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측정도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 초4 7차 년도를 사용하여, 총 10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긍정문항은 역코딩한 점수로 투입하였으며, 본 연구의 양육태도 신뢰계수는  $\alpha=.871$ 이다.

### 3.2 종속변수 : 공격성

공격성은 청소년이 종일 화가 나거나,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으며, 싸우거나 방해하는 정도에 대한 질문 문항을 종속변수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 초4 7차 년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6개 문항으로 Y12의 8번~13번 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 부정문항은 역코딩한 점수로 투입하였으며, 본 연구의 공격성 신뢰계수는  $\alpha=.820$ 이다.

### 3.3 매개변수 :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청소년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신뢰하며, 자신의 비밀을 나누는 정도에 대한 질문 문항을 매개변수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 초4 7차 년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6개 문항으로 Y27의 1번~6번 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 긍정문항은 역코딩한 점수로 투입하였으며, 본 연구의 또래애착 신뢰계수는  $\alpha=.889$ 이다.

### 3.4 통제변수

선행연구결과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성별(1=남, 0=여)은 더미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주관적 가정형편(1=매우 잘 사는 편, 2=잘 사는 편, 3=약간 잘 사는 편, 4=보통 수준, 5=약간 못 사는 편, 6=못 사는 편, 7=매우 못 사는 편)은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다단계층화집락 표집 방식으로 조사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데이터 초4 패널 중에서 7차년도 데이터를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Person 상관계수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매개변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 경로분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중3 남학생이 1,000명(52.1%), 여학생이 918명(47.9%)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가정형편 정도에 대해 ‘매우 잘 사는 편’ 29명(1.5%), ‘약간 잘 사는 편’ 211명(11.0%), ‘잘 사는 편’ 305명(15.9%), ‘보통’ 1,127명(58.8%), ‘약간 못 사는 편’ 175명(9.1%), ‘못 사는 편’ 66명(3.4%), ‘매우 못 사는 편’ 5명(0.3%)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인지하는 주관적 가정형편 정도는 보통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일반적 특성 (N=1,918)

변수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학생	1,000	52.1
	여학생	918	47.9
주관적 가정형편	매우 잘 사는 편	29	1.5
	약간 잘 사는 편	211	11.0
	잘 사는 편	305	15.9
	보통	1,127	58.8
	약간 못 사는 편	175	9.1
	못 사는 편	66	3.4
	매우 못 사는 편	5	.3

### 2.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분석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기술통계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평균은 2.18(SD=.54), 청소년의 공격성은 1.83(SD=.54), 또래애착 평균은 3.20(SD=.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N=1,918)

기술통계 결과					상관계수 분석 결과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최소값	최대값	구분	1	2	3
양육태도	2.18	.54	1.00	4.00	1. 양육태도	1		
공격성	1.83	.54	1.00	3.83	2. 공격성	.298***	1	
또래애착	3.20	.49	1.00	4.00	3. 또래애착	-.155***	-.271***	1

\*p<.05, \*\*p<.01, \*\*\*p<.001

### 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애착 매개효과 검증

회귀모형 적합도를 판단 할 수 있는 모델 1의 F값은 37.778(p<.001)이며, 모델 2의 F값은 86.685(p<.001)이며, 모델 3의 F값은 93.744(p<.001)로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모델 1에서는 5.6%이며, 모델 2는 12.0%, 모델 3은 16.4%로 나타났다. 설명력이 모델 1보다 모델 2가 6.4% 증가하였으며, 모델 2보다 모델 3의 설명력이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Baron & Kenny(1986)이 제안한 3단계 모형 모두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beta=.043$ ,  $p<.001$ ), 주관적 가정형편( $\beta=-.175$ ,  $p<.001$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 $\beta=-.146$ ,  $p<.001$ ) 독립변인과 또래애착 매개변인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동시에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beta=.102$ ,  $p<.001$ ), 주관적 가정형편( $\beta=-.140$ ,  $p<.001$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인인 양육태도( $\beta=.308$ ,  $p<.001$ )는 종속변인인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도 연령( $\beta=.111$ ,  $p<.001$ ), 주관적 가정형편( $\beta=.102$ ,  $p<.001$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종속변인인 공격성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육태도 변인이 공격성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beta=-.308$ ( $p<.001$ )에서  $\beta=.276$ ( $p<.001$ )으로 감소하였다. 그래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또래애착( $\beta=-.217$ ,  $p<.001$ ) 변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부모의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또래애착 매개효과

(N=1,918)

구분		모델 1 (독립변수→매개변수)		모델 2 (독립변수→종속변수)		모델 3 (독립변수, 매개변수→종속변수)	
		B(SE)	β	B(SE)	β	B(SE)	β
통제변수	성별	.042(.022)	.043***	.110(.023)	.102***	.120(.023)	.111***
	주관적 가정형편	-.900(.011)	-.175***	.078(.012)	.140***	.057(.012)	.102***
독립변수	양육태도	-.132(.020)	-.146***	.307(.022)	.308***	.275(.021)	.276***
매개변수	또래애착					-.238(.024)	-.217***
	상수		3.807***		.815***		1.720***
	R <sup>2</sup>		.056		.120		.164
	F(sig)		37.778***		86.685***		93.744***

\*p<.05, \*\*p<.01, \*\*\*p<.001

표 4.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path	Z	P value	매개효과
양육태도→ 또래애착→ 공격성	5.49	p<.001	부분매개효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애착을 매개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46 \times -.217 = .032$ 이며, 총 인과적 효과는  $.276$ (직접효과) $+.032$ (간접효과)를 합산한 결과  $.308$ 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주람(2008)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의 수준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가 부정적인 청소년은 또래애착을 매개로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 4.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부모의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 공식을 사용하여 확인한 결과 Z값이 1.96보다 큰 5.49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박용권(2010)에 의하면 Sobel Test 결과 산출된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영가설이 기각되어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Sobel Test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36].

$$\text{Sobel Test 공식} : Z_{ab}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a(비표준화 계수) : 독립변수→매개변수

b(비표준화 계수) : 매개변수→종속변수

SE<sub>a</sub> : a의 표준오차

SE<sub>b</sub> : b의 표준오차

#### V.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에 대해 제시한 후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회귀모형 적합도를 판단 할 수 있는 F값이 모델 1은 37.778(p<.001), 모델 2는 86.685(p<.001), 모델 3은 93.744(p<.001)로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 또한 모델 1<모델 2<모델 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

모형의 적합도는 Baron & Kenny(1986)이 제안한 3단계 모형 모두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델 1에서는 성별( $\beta=.043, p<.001$ ), 주관적 가정형편( $\beta=-.175, p<.001$ ), 양육태도( $\beta=-.146, p<.001$ )가 또래애착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성별( $\beta=.102, p<.001$ ), 주관적 가정형편( $\beta=.140, p<.001$ ), 양육태도( $\beta=.308, p<.001$ )가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 일수록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18][19][22]. 모델 3에서도 연령( $\beta=.111, p<.001$ ), 주관적 가정형편( $\beta=.102, p<.001$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종속변인인 공격성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육태도 변인이 공격성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beta=.308(p<.001)$ 에서  $\beta=.276(p<.001)$ 으로 감소하였다. 그래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또래애착( $\beta=-.217, p<.001$ ) 변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인실과 장석진(201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또래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애착을 매개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32이며, 총 인과적 효과는 .276으로 합산한 결과 .308이다. 또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Z값이 5.49( $p<.001$ )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Sobel Test로 검증하여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청소년은 또래와의 애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청소년은 공격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청소년은 또래와의 애착관계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래애착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 또래애착 → 공격성의 관계에서 또래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현대사회는 맞벌이로 부모가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도 프로그램의 접근성이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접근성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부모교육자료는 유인물로 제공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기는 하나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연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그룹 부모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출산을 앞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유아기와 아동기에 이미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공격성이 높은 수준의 청소년에 대한 또래애착 프로그램은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것을 본 연구결과가 경험적 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 이에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프로그램개발도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청소년수련원과 학교가 연계하여 소그룹으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개발과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프로그램개발과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함을 전제로 질적인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가 별도로 예산측정되어야 한다. 현 정책은 사업비(운영비)에 인건비를 포함하여 지원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건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전문인력을 실천현장에서 영입하기에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외부 전문가를 투입하므로 비상근 형태로 서비스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어야 상근 전문가에 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비상근은 회기 또는 회차로 서비스 종결 후 전문가에 의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부모교육 전문가와 청소년의 사례관리 전문가를 청소년상담센터 또는 청소년수련관에 별도의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1] P. Orpinas and F. Frankowski, "The aggression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21, No.1, pp.50-67, 2001.
- [2]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2017. 12. 1
- [3]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언어실태 조사*, 2010.
- [4] 국립국어원, *청소년 언어실태 언어의식 전국 조사*, 2011.
- [5] 국립국어원,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연구*, 2016.
- [6] R. A. Baron and D. Byrne, *Social Psychology: Understanding human interaction(7th ed)*, Newton. MA: Allyn & Bacon, 1994.
- [7] 이영화, 김경연,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 제50권, 제2호, pp.1-10, 2012.
- [8] R. E. Trembley,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24, No.2, pp.129-141, 2000.
- [9] 박광원, 강현욱, "스포츠클럽 활동 청소년의 공격성이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구조적 관계 검증,"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5권, 제4호, pp.397-411, 2016.
- [10] 이은춘,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또래애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영연구논문집*, 제8권, pp.89-103, 2016.
- [11] 김은경, 김홍숙, 김순규,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 연구*, 제28권 제8호, pp.303-324, 2013.
- [12] J. Bowlby,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73.
- [13] G. H. Bower, "Model and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Vol.36, pp.129-148, 1981.
- [14] U. Bronfenbrenner,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15] 이인정, 최해경,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나남출판, 2006.
- [16] 장수복, 한주빈, 이명순, 이예중, 양시영, 오봉욱,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동문사, 2014.
- [17] 류동훈, *교사와 부모에 대한 아동의 수용-거부 지각과 사회 심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18] 전주람,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모애착 및 공격성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19] 유원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언어발달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20] 조채운, 권연희,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지능 및 언어능력의 역할," *한국보육학회지*, 제14권, 제1호, pp.51-72, 2014.
- [21] M. E. Feinberg, G. W. Howe, D. Reiss, and E. M. Heitherington, "Relationship between perceptual differences of parenting and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14, No.4, pp.531-555, 2000.
- [22] 한동현, 김완일, "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4권, 제1호, pp.247-263, 2013.
- [23] 이진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여중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4] 정미경,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2.

[25] G. W. Ladd and G. J. Kochenderfer,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67, No.3, pp.1103-1118, 1996.

[26] 김광숙, 신경실, 이훈민, "융복합시대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와 부정적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융합정보논문지, 제7권, 제4호, pp.139-149, 2017.

[27] 장인실, 장석진,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6호, pp.291-313, 2012.

[28] 민선옥, 강영숙, "초기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44권, pp.307-334, 2015.

[29] 권형용, "청소년 동반자의 상담사례를 통한 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질적 분석," 인문학논총, 제33권, pp.151-181, 2013.

[30] 최은희, 황미영,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폭력피해와 또래폭력가해와의 관계: 불안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8호, pp.597-609, 2017.

[31] 오복순, 원유순, 함승래,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관계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6호, pp.106-115, 2017.

[32] 장재숙, 백경임, "어머니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개념이 아동의 친구 및 교사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8호, pp.1-11, 2004.

[33] 김은진, 이정윤, "부모와의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우울증상 및 갈등해결 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제17권, 제2호, pp.55-68, 2009.

[34] 최진희,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10.

[3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7.

[36] 박용권, *spss 사회복지자료분석*, 신정, 2010.

저 자 소 개

김 숙 향(Sug-Hyang Kim)

정회원



- 2010년 2월 :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 2014년 8월 : 경기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7년 8월 : 경기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김 형 모(Hyung-Mo Kim)

정회원



- 1990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1994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1996년 6월 : University of Minnesota, School of Social

Work(M. S. W.)

- 2000년 5월 : University of Minnesota, School of Social Work(Ph.D.)
  - 2001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